

6/5/22

설교 제목: 세례 요한의 재증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3장 22-36절

- (요 3:22)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 (요 3: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절관주** 삼상 9:4
- (요 3: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절관주** 눅 3:19, 눅 3:20
- (요 3: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 (요 3:26)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 (요 3:27)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절관주** 약 1:17
- (요 3:28)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절관주** 요 1:20, 요 1:23
- (요 3: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 (요 3: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 (요 3: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절관주** 고전 15:47
- (요 3: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 (요 3: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 (요 3: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 (요 3: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 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유대 땅으로 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가 이 사실을 고합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재차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은 오직 요한 복음에만 나옵니다.

(요 3:22)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요 3: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 3: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 3: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애논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중간 지점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 당신이 증언하던 예수가 세례를 베풀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몰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선 자신들의 스승에게 세례를 받은 자가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는 것도 기분 좋을 리 없는데 자신들의 스승에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리니 속이 뒤뜰렸습니다.

(요 3:26)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던 증언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자 경쟁심과 시기심이 발동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세례 요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그리고 우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마 20: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마 20: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마 20:19)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마 20: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마 20: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 20: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 20:23)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 20: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마 20: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마 20: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 20: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자신들의 교회 가까이에 누군가가 새로이 교회를 세우면 축하해 주고 도와주기는 커녕 경계하여 성도 단속부터 합니다.

새로이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기 보다는 오히려 시기 질투를 하고 부흥을 방해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되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물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요 3:27)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 3:28)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모습을 보고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추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요 3: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 3: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에서 신랑 친구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신랑 친구들은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는 것에서부터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모든 절차를 총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신랑 신부의 결혼을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쁨이 바로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들을 신부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합니다.

그러니 신부를 취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은 신랑 친구로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로 신랑의 친구인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고 그 일로 인해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신이 쇠하고 다른 사람이 흥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릇이 크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다시 증언합니다.

(요 3: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 3: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위로부터라는 단어는 원어로 '높은 곳'이라는 의미와 함께 '처음으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난 자들은 땅에 속하였기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땅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요 3: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요 3: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 3: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 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다 아들이신 예수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누가 큰가를 다투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은 곧 없어질 뜬 구름 같은 것들입니다.

하늘의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에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있어 세상에서 큰자가 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큰 교회를 세워 세상에 이름을 내고 부를 거머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데 사역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각각의 사역이 모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모자이크처럼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내 자신은 쇠하게 되어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말을 명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